은행권 첫 공동점포·금융 특화 편의점 운영 호평

‘혁신 무장’ 하나은행, 금융 접근성 개선 앞장

우리은행 손잡고 공동점포 문 열어
점포수 급감 속 지역 사회공헌 일환

CU와 은행 품은 편의점 2호점 오픈
마천파크점 SMT 이용 1만건 돌파

하나은행이 협업을 통한 새 콘셉트 점포로 금융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하나은행·우리은행 공동점포(왼쪽)와 경기 안양 소재 금융 특화 편의점 2호점인 CUX하나은행 비산자이점.
사진제공 | 하나은행·CU

하나은행이 협업을 통한 새 콘셉트 점포로 금융 접근성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은행과의 공동점포, 산업은행과의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 편의점 CU와 함께 선보인 미래형 금융 특화 편의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낳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 콘셉트 점포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고객 중심 금융에 한발 더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은행권 최초 공동점포 개점

먼저 공동점포와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가 눈에 띈다. 4월 말 우리은행과 함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공동점포를 열었다. 이 지역은 하나은행 수지신봉지점이 지난해 9월13일, 우리은행 신봉지점도 지난해 12월30일에 영업을 종료한 바 있다. 이에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데 최적의 지역이라는 양사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했으며, 은행권 최초로 동일 공간에서 두 개 은행을 운영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고령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및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기존 우리은행 신봉지점 자리에 영업공간을 절반씩 사용하며 소액 입출금, 제신고, 전자금융, 공과금 수납업무 등 고령층 고객 수요가 많은 단순 창구업무를 취급한다. 지역 사회공헌 목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품판매는 자제하기로 했다. 근무 직원은 은행별 2명씩 총 4명이 근무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월 말에는 산업은행과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양사가 지난해 8월 체결한 ‘정책금융·상업금융 성공적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산업은행 고객은 하나은행이 보유한 612개 점포와 3576대 자동화기기(ATM)를 산업은행 채널처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청약상품, 개인신용대출, 정부 연계 상생협약 상품 등 다양한 개인금융 상품을 하나은행 점포에서 상담 가능하다. 또 하나은행의 전문 프리이빗 뱅커(PB)를 통해 상속 및 증여, 리빙트러스트 등의 차별화된 자산관리(WM)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형 금융 특화 편의점 선보여

지난해 10월 편의점 CU와 유통과 은행을 결합한 신개념 금융 특화 편의점 1호점인 CUX하나은행 마천파크점(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을 선보인 데 이어, 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2호점인 CUX하나은행 비산자이점을 오픈했다.

상업자 표시 편의점(PLCS) 개념으로, 기존 숍인숍 방식을 넘어 공간의 공유와 함께 제휴 브랜드의 서비스 및 콘텐츠를 결합하는 협업 점포 모델이다. 이에 양사의 로고를 내·외부 인테리어에 공통으로 적용했다.

편의점 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은행 스마트 셀프존을 만들고 종합금융기기인 STM(스마트 텔러 머신)을 설치했다. STM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상담원과 상담 연결을 통해 계좌 개설, 통장 재발행,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발급 등 기존 점포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이용률도 높다. 마천파크점 STM을 이용한 은행 업무 처리 건수는 약 6개월 만에 총 1만 건을 돌파했다. 단순 입출금 서비스만 제공하는 ATM이 설치돼 있을 때보다 하루 이용 건수가 무려 4배나 늘었다는 게 CU측 설명이다.

비산자이점의 경우 인근에 5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1만1000여 명이 재학 중인 대학교 등이 있지만 반경 500m 이내에 은행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반영해 금융 특화 편의점으로 꾸렸다. 하나카드로 상품 구매 시 5% 현장 할인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측은 “유통과 금융 컨버전스 모델이 고객 편의를 높이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향후 양사의 고객 데이터 융합을 통한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결제서비스 공동 개발, 2030 MZ세대 맞춤형 공동 이벤트 진행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롯데카드, 가전·가구 정기 방문 관리 ‘리빙케어’ 출시

롯데하이마트 전문 관리사가 찾아가
론칭 기념 신규 가입자에 특별 혜택

롯데카드가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가전·가구 정기 방문 관리 서비스 ‘리빙케어’를 출시했다.

롯데하이마트 전문 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비데 등 가전과 매트리스 내·외부를 세척 및 살균해주는 서비스다. 제품 관리 주기마다 방문해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가입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의 라이프탭 내 케어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월 요금은 2600～2만2400원으로, 제품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제품별 관리 주기는 세탁기와 건조기 24개월, 냉장고와 에어컨 12개월, 매트리스 6개월, 비데 3개월이다. 관리 주기가 돌아오면 디지로카앱이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전국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입 가능하며, 매장 신청자에게는 롯데하이마트 가전 구매 시 할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준다. 또 출시 기념으로 6월30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준다. 관리사 최초 방문 시 피톤치드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회사 측은 “그동안 가전 및 매트리스 관리 서비스는 제품 브랜드별로 제공되거나 고객이 직접 업체를 찾아 서비스를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리빙케어 서비스는 롯데하이마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척 및 살균해주고, 앱으로 신청과 방문 예약도 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6월30일까지 기존 정기구독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심쇼핑, 카셰어링팩, 컬쳐DC 신규 가입 시 커피 쿠폰을, 휴대폰케어 신규 가입 시 파리바게트 3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정정욱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오른쪽)와 김도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사.
사진제공 | 두나무

두나무, 도시 환경 교육·개선 팔 걷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도시 환경 교육 및 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꿈나무 메타스쿨’,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공공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향후 세컨블록, 업비트NFT 등 두나무의 기술력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 ‘KBO 레전드 40인 팬투표’ 진행

신한은행이 6월5일 오후 6시까지 모바일뱅킹 신한 쏠(SOL)에서 ‘KBO리그 레전드 40인 팬투표’를 실시한다.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개막 원년부터 한국프로야구를 빛낸 40인을 선발한다. KBO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77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KBO 전문가 투표인단 80%와 레전드 40인 팬투표 점수 20%를 합산해 최종 선정한다. 7월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2 KBO 올스타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한 야구팬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민은행, 26일 연금투자 등 금융교육 세미나

KB국민은행이 26일 오후 5시30분 유튜브 생방송으로 ‘KB골든라이프 톡톡’ 5월 세미나를 연다. 은퇴 준비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연금투자, 세금, 부동산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과 공적·사적연금의 제도별 핵심 포인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17일까지 KB스타뱅킹,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7일 (화) 음력: 4월 17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띠	행운색	길방	운세
쥐	흰색	서	주위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많은 때이다. 처음은 곤란하지만 우물물이 밑바닥은 흐려도 위 일수록 맑듯이 시일이 지날수록 점차 좋아지게 된다. 지출이 심하니 잘 조절하라. 은행 대출은 기다리면 된다. 부부싸움을 조심해야겠다.
소	적색	남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호랑이	적색	남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취업 운이 좋은 날이다.
토끼	검정	북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경제적 고통이 따른다.
용	적색	남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주식이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도움을 받으려면 말띠에게 부탁하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뱀	청색	동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떳떳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는 일만 하라.
말	청색	동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양	적색	남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이 있어야 된다.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원숭이	검정	북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쉬울 때이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닭	검정	북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성문제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개	흰색	서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오늘은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돼지	청색	동	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뻗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하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오늘의 날씨 17일(화)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서울	0/0	14	26
인천	0/0	14	22
춘천	20/0	11	27
강릉	0/0	16	25
대전	0/0	12	27
전주	0/0	12	27
광주	0/0	12	26
대구	0/0	12	28
부산	0/0	15	24
창원	0/0	12	26
제주	0/0	15	24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2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